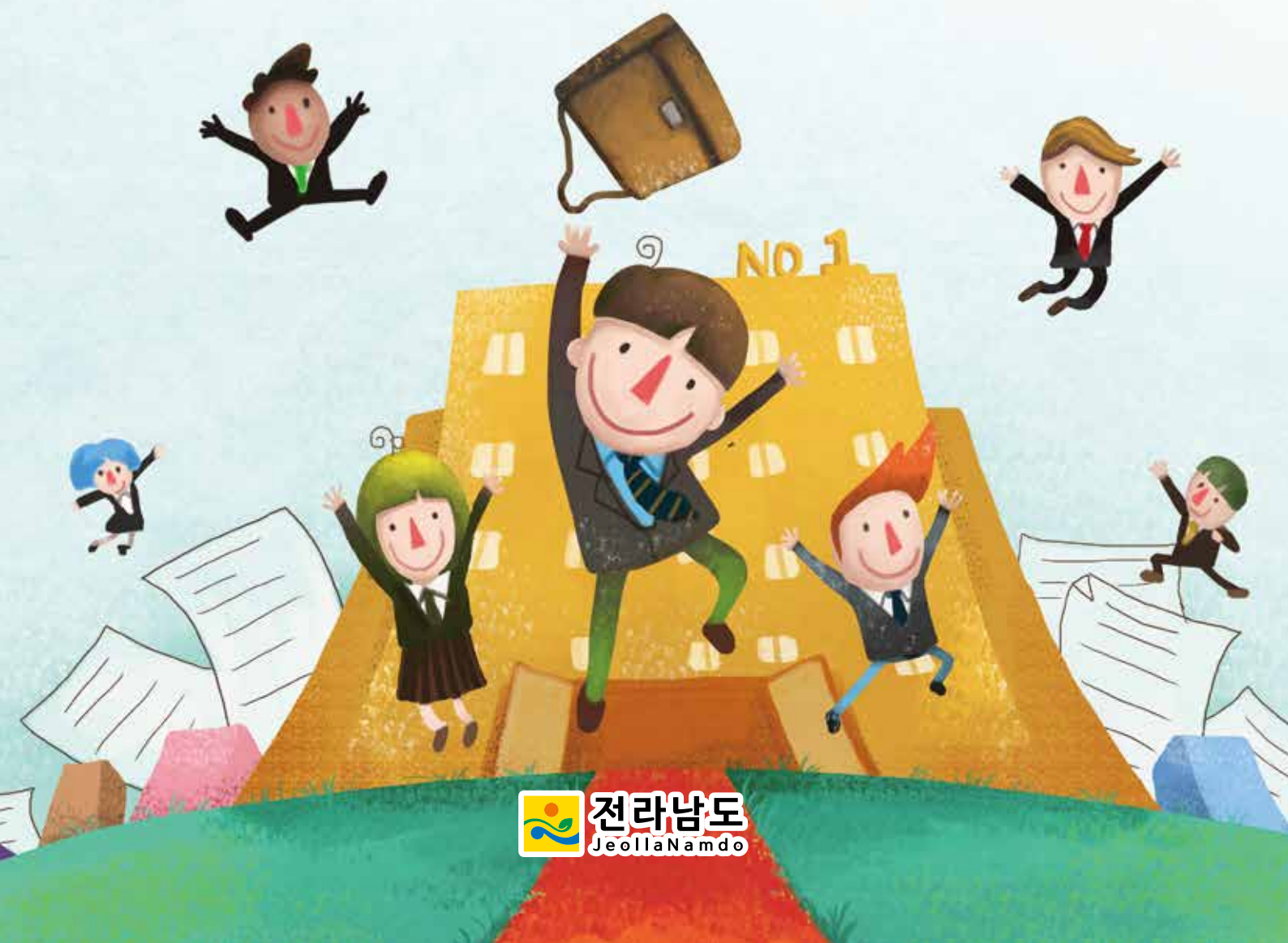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 청년취업 성공사례집

지역청년들의 취업성공 체험수기

| 2017년 8월호 |



# Contents

IoT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한 이지드라이! ..... 02	02
_ 이후경	
기회는 분명 온다! 준비해서 기회를 잡자! ..... 04	04
_ 진교성	
의지를 가지고 준비된 자에게는 꼭 기회가 온다! ..... 06	06
_ 이경훈	
동경이 꿈을 만들다 ..... 08	08
_ 손소원	
도전하는 사람만이 더 넓고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다 ..... 12	12
_ 서웅지	
하나의 장애물은 하나의 경험이며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다 ..... 14	14
_ 박지숙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 16	16
_ 박지현	
헛된 시간은 없다. 자기 자신의 시간에 투자하라! ..... 18	18
_ 김수빈	

## IoT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한 이지드라이!

창 업 자	이후경(여, 22세, 목포대학교 재학)
창 업 기 업	신생기업 '이지드라이'
창 업 내 용	IoT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 이지드라이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미대 나와서 뭐할래?” 라는 말인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가장 기분 좋게 열심히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자주 던져 보았습니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둘 중 무엇을 선택 할래” 라는 말에 저는 당연히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열정이 생겨 먼저 나서서 하게 되어 자연스레 과에서도 대표를 도맡아 하고,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여러 활동과 일들을 통해 졸업 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리더십을 키워 가며 조금씩 미래를 위해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권유로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스마트창업터 해커톤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분위기 등 기업에 취업하는 진로는 저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창업을 하면 어떨까’ 라는 궁금증에 도전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각보다 그곳은 내 그릇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면서 생전 처음 들어본 단어들에 힘이 들었고, 저처럼 남들보다는 조금 이른 나이에 이렇게 뛰어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번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아는 지식들이 쌓이고 경험이 되면서 이제는 생소하던 단어가 들리게 되고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보다 먼저 사회 경험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부듯했습니다. 덕분에 무조건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해야지 하는 생각과 단순히 디자인 회사에 취업하거나 좋아하는 일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닌, 내가 창업을 해서 로고디자인, 상품디자인 등 평소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직접 해보고 나의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을 거라는 멋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창업이 현재는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마트창작터와 협약하여 입주 공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IoT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 이지드라이' 라는 제품으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젖은 옷을 말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기업으로서 스마트창작터 지원사업은 저에게 창업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청년 대학생 여러분!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들의 놀랍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꽃 피울 수 있게 많은 기관에서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석을 잘 다지며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멘토님들과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지드라이”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기회는 분명 온다! 준비해서 기회를 잡자!

취업자	진교성(남, 24세, 순천대학교 전기전공)
취업기업	한국전력공사
업무내용	배전운영팀

고등학교 시절 대학 원서를 접수할 때 여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광주전남에는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이전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저는 전라남도 소재 대학생들에게 분명 한국전력공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지역 대학교를 포기하고 순천대학교 전기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처음 취업준비를 할 때에는 단순히 서류 통과를 목표로 눈으로 보이는 스펙 위주의 취업준비를 하였습니다. 토익, 전기기사, 사무자동화, 한국사 등 여러 가지 스펙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교로 POSCO 산학장학생 추천서가 왔고, 기존에 학점관리를 잘해두고 있어서 추천서를 받아 최종면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 탈락한 이유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스펙 이외의 경험이 부족했다는 점이 제일 큰 탈락의 요인으로 생각하였고,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에너지공기업을 희망하는 저로서는 대한민국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이 부족하여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전력거래소에서 4박 5일간 진행되는 ‘차세대 전력인 양성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전력거래소 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력 계통의 흐름과 한국전력과 발전소간 전기거래방식, 가격산정, 전력수요측정 등 대학수업에서 배우기 힘든 내용들을 학습하여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한전KDN 등 여러 기업들에 대한 취업설명회를 통하여 채용과정과 NCS 시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워 취업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 인력개발원을 통하여 모의 면접 및 면접 TIP에 대하여 인력개발원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고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국전력공사 채용형 인턴 전형에 대해 알게 되었고 교내에서 배부하는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력거래소에서 학습한 내용과 대한민국 전력산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자기소개서에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고 NCS시험, 면접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 채용형 인턴에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선 목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 대학을 다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취업하고 싶은 회사,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 이달의 목표, 10년 후의 목표 등 여러 가지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하십시오. 계획하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최종 탈락의 경험을 통하여 좌절도 하였지만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배웠고, 그것을 통하여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꼭!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지를 가지고 준비된 자에게는 꼭 기회가 온다!

취업자	이경훈(남, 34세,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취업기업	금산전력(주) / 태양광 발전장치
업무내용	태양광사업부 공무원

안녕하세요! 저는 금산전력(주)에 태양광 사업부에 취업한 이경훈입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집에 설치한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보고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태양광에너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간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장성희망일자리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알아봤고 그 결과 제가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신재생에너지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향에서 근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산전력(주)에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태양광발전소 설립에 관한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나 건물 또는 시설에서 발전시스템을 인허가하고 관리 설계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이 회사에 있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태양광발전소를 5개소 정도 준공 하였습니다. 안전검사까지 잘 끝나서 발전소가 별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 높은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장 시공팀과 사무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 착오가 생기면 다른 팀의 실수 책임을 따지기 보다는 바로 수정하고 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각 팀의 관리자 분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 모습이 부하직원들에게 신뢰하고 잘 따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현재 전남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이 입지하고 있고 전남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 매우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발전소가 늘어나고, 무궁한 발전 기회가 있으므로 활동분야가 더욱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내외에서도 최근 시장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국내에서도 세계시장에 대비를 위하여 전문가를 육성하고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블루오션 시장이므로 이렇게 시장이 팽창할 때 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취업해 전문기술을 익히며 근무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역기업에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짧게 조언을 한다면, 저도 취업 전에는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잦다고 패배감에 젖어서 ‘이번에도 안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언젠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취업은 1승만 하면 99패를 해도 이기는 게임입니다. 저는 좌절감이 올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게 되는 후배들이 당장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 동경이 꿈을 만든다.

취업자	손소원(여, 20세, 진성여고)
취업기업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지금 이 시간도 불철주야 열공하는 이 땅의 공시생 여러분! 희망의 끝자락을 움켜쥐고 끝까지 놓지 말았으면 하는 진심 어린 응원을 전합니다. 저는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의 취지를 먼저 살피고 내게 맞는 길인지, 내가 해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수 없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을 목표로 진성여고 진학을 결정했을 때, 주변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은 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려는지 만류도 했었지만, 언제나 나를 믿어 주시는 부모님과 제 꿈을 향한 간절함에 지금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반에서 최종 합격까지 공부에 대한 자유 의지를 지지해 주시고 힘든 난관도 지혜롭게 헤쳐 가는 힘을 주신 지금의 교감선생님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못 할 두 분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 또래 친구들보다 동적인 아이였던 저는 경찰관이 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날 가끔 때리고 놀리는 남자아이들을 모두 수감으로 채워 감옥에서 하루를 재워버렸음 좋겠다고 생각하며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경찰관을 동경했고, 그 작은 꿈이 점차 자라면서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어머니와 함께 진로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탐색하던 중 특성화 고등학교 대상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 제도를 알게 되어 경찰청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반 행정직을 목표로 삼고, 진성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꿈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확고한 꿈을 가지고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목표만을 위해 달렸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질에는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필수적이라 여기고, 책임감을 위해 3년 동안 학급 임원을 맡아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며 급우들과 함께 풀어나갔으며, 봉사정신을 위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1,2학년 때에는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한 성적관리에 힘을 썼고, 유독 공무원 시험 과목인 국어와 한국사, 영어 공부에 더욱 박차를 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 전투의 막이 오른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학교에서 개설해준 공무원 시험 대비반에 들어가 본격적인 공무원 시험공부를 시작해서, 이듬해 4월부터 하루에 세 시간도 못 자면서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국어는 제일 먼저 문맥을 파악하는 감각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글 쓰는 것을 좋아해 국어에 대한 관심이 남 달랐던 터라 인터넷 강의나 별도의 문제집 필요 없이 수업을 통째로, 그리고 국어 강사님의 목소리까지 성대모사 할 정도로 과목 자체를 즐겨 100점이라는 값진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모두가 그러하듯 두렵고 다가가기 까다로운 과목이라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영어 인터넷 강의를 찾아 샘플을 보여주셨고, 적극 추천하시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힘든 문법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깨워주신 강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해 또한 덩어리로 분리시켜 읽는 비법을 배웠고, 어느덧 강의에서 나오는 영어노래를 부르면서 노트북을 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반 영어 수업도 병행해 영어 실력을 한결 더 다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국사는 복병이었습니다. 가장 친하고 내 언니 같은 과목이 배울수록 배신을 했습니다. 방대한 양에 놀라고, 죽어라 암기하고 흐름을 익히면 또 다시 멀리 가 있는 언니의 배신은 시험 보러 가기 전날까지도 괴롭힌 과목이었습니다. 한국사는 막힐 때마다 지금은 색이 바란 중학교 때의 교과서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교과서와 자습서를 펼쳤습니다. 공무원 한국사 교재보다 쉽게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흐름을 잡아 다시금 수월해지고, 중학교 때 좋아했던 역사 시간이 겹치면서 나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 거름이 꽃을 피우다.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1차 합격의 기쁨을 누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관문인 면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믿었고, 무엇보다 선생님들과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전부가 됐으며, 어쩌면 그 믿음은 3년간 꾸준히 해온 학교 홍보 활동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들의 특성화 고등학교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면 홍보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 또한 각 중학교를 방문해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활동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홍보 활동에 참여해 친구들과 선생님들, 처음 보는 중학생들 앞에서 학교데 대해 발표하고 학생들을 상담했습니다. 홍보 초기엔 온 얼굴이 빨개졌고 말을 더듬거리기도 했지만,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대하는 능력과 대화의 기술을 터득하여 홍보팀의 엘리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이렇게 키워온 화술이 면접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면접 트레이닝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길을 걷다 보면

면접은 걱정했던 것보다 수월하게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3년간 쉬지 않고 일이 주어질 때마다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임해 결국 피와 살이 되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면접 진행에 큰 강점이 되었고, 오히려 면접은 그간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수많은 경험들이 그 순간에는 힘들고 지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경험 하나하나가 밑거름이 되어 수확의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역경 없이는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음을 인지하며 가는 길 힘들어 하지 말고 굳은 시선과 굳은 의지로 점진한다면 어느덧 목적지에 다가선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된답니다.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들고 그 건강함이 공부할 수 있는 힘도 만들어 냅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 도전하는 사람만이 더 넓고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다.

취 업 자	서용지(남, 29세, 대졸)
취 업 기 업	(주)아성프라텍 광주공장/자동차용 플라스틱 사출 및 금형
업 무 내 용	품질관리 계장

도전하는 사람만이 더 넓고 높은 곳을 향해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항해를 결심했을 때 지구가 네모난 모양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항해를 이어갔고 마침내 새로운 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립하는 걸 좋아하여 기계 관련 학과 진학을 위해 조립 중 가장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선박해양공학을 선택 하였습니다. 대학시절 취업 준비과정에서 토익 및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 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공이었던 선박해양공학은 선박업계 경기불황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많아 전공과 맞지 않는 자동차 분야 취업을 선택하였지만 주위에서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자동차 분야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도전이었으며 그 결과 아성프라텍이라는 「현대/기아자동차」 1 차 협력 업체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아성프라텍은 자동차 및 전자부품 플라스틱 사출 전문 업체로서 품질관리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맡은 일은 조립과 생산에서부터 외주 업체 생산품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품질, 상태, 규격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장착되어 전국 판매 또는 해외 수출되고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지식을 쌓았고 중간에 힘들어 포기할 뻔도 했으나 부서원들의 격려와 관심, 가르침 등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적응하였고 나아가 업무에 대한 만족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내가 검사한 제품을 다른 사람이 신뢰하고 타고 다니는 생각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회사 생산 부품에 대한 처음과 끝을 알고 사내 외 품질관리 및 대응 외에도 여러 가지 서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입사 시절의 마음가짐으로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며 어떤 일이든 의문점을 가지고 기어코 해결해 낸다는 각오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묵묵히 노력하고 도전한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이 생겨날 것이고 그것이 곧 자신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 하나의 장애물은 하나의 경험이며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다.

취업자	박지숙(여, 32세, 목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취업기업	동양이엔지
업무내용	경리사무원

‘내가 없는 빈자리는 티가 나게 하자’라는 것이 저의 생활신조입니다. 학창시절 아르바이트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항상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인턴 기간에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업무라도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인턴 업무 중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할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자신을 격려하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매사 긍정적인 마인드로 웃으며 생활하려고 노력하였고 ‘스마일 사원’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것은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저는 간혹 일이 바쁘면 당황하게 되어 긴장될 때도 있지만 메모 습관을 들이며 노력하고 있으므로 당장의 빠른 효과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꾸준히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육아에 전담하니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버렸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취업하기 힘들게 만드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육아에 전념하면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막상 일하려고 이력서를 제출해도 연락 오는 곳도 없었습니다. 면접을 볼 기회라도 주어졌으면 했는데 5년이라는 경력단절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하나의 경험이며, 또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가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길을 찾으면 언젠가는 문이 열리는 것처럼 저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도움으로 주 5일 근무에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경리사무원 자리가 있어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에 제일 힘든 문제가 육아 문제가 아닐까

싶었는데 시간제 일자리로 일하게 되면 육아 문제가 해결 돼서 업무에 조금 더 집중 할 수 있고 일 가정 양립도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5년이라는 경력단절기간이 있어서 처음에는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 본 업무가 아니라서 많이 해매고 실수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실수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항상 또 하나의 경험이 된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패도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취 업 자	박지현 (여, 22세,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취 업 기 업	(주)성동전기소방
업 무 내 용	계약, 착공, 청구서류 등 작성 및 관리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찾지 못함”을 이르는 속담입니다. 사자 성어로는 “등하불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말 중 하나입니다. 성동 전기소방에 취업을 하게 된 계기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집을 떠나 먼 곳에서 성공하기를 바랐지만, 저는 안정적인 삶을 원했기에 고향 해남에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워크넷’ 채용 정보 사이트가 등잔 밑을 환하게 비춰주는 촛불 역할이 되어 집과 가까운 이 곳 성동 전기소방에 취업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경리 업무입니다.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계약·착공·청구 서류 등을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공사업무를 하는 회사 특성상 직원들의 연령대가 저희 아빠보다 조금 적거나 많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마음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숨 막히는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과 가족같이 친근한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 측면으로 보나 업무능력을 발휘하는 측면에서 봐도 확연한 차이를 느낍니다.

둘째, 지자체 등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들이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하고 어르신들은 지방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남형 청년인

턴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있습니다. 무작정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만 고집하기 보다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청년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 등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원 정책을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지역에서 자리 잡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3%만 살아남는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지 않고, 태어나 자란 지역에서 정착해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헛된 시간은 없다. 자기 자신의 시간에 투자하라!

취업자	김수빈(여, 26세,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취업기업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
업무내용	예금계(창구업무)

누구에게나 첫 직장에 대한 기대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며 원하는 직장에 이력서를 내는 것도 처음에는 설렘 반 두근거리는 기대감 반이지만, 하고 싶은 일을 찾기엔 세상은 너무 단호하며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타지생활을 1년 정도 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잘 알고 있었고, 경제적인 부분과 맞닥트리면서 이 일이 나에게 맞는 건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한테 적합한지 찾는다는 게 어려웠고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직업은 한정적이며 안정적인 직장만 생각하고 있어 더욱 더 범위는 좁고 항상 그 범위 안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 때 학교에 속해 있는 '인력개발센터'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저에게 맞는 직업군과 저의 성격과 잘 맞는 직업군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취업을 나가기 전 인턴으로 그곳에서 일을 배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 이었습니다. 면접부터 직접 현장에서 배우며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생각이나 다시 한 번 전남광역새일센터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여러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은 사람들과 친근감 있게 대화 할 수 있었던 것에 익숙해져 있어, 서비스직을 위주로 새일여성인턴제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맡은 업무는 예금계입니다. 해남은 아무래도 지역사회이다 보니 대부분 고객님의 연령층이 50대 이상입니다. 연령대가 젊은 고객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주 고객님은 어르신들이고 기존의 상품에 익숙하시다 보니,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상품들을 설명하려니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모든 서비스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항상 친절해야 되는 점이 가장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꾸 오시는 손님들이 제 얼굴을 알아보시며, 어르신들께서 고맙다며 이름을 불러 줄 때에는 저도 보람과 정을 느끼며 ‘어르신들께는 조금 더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업무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격증, 그리고 현실에서 배우는 경험마저 스펙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선배님들을 찾아다니며 많이 들었던 말은 ‘너의 경험이 스펙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험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세상이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꼭 필요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은 없고 자격증에 매달려 있을 때는, 저도 누구의 말 한마디에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혼란이 온다면 경험을 위해 전남광역새일센터 등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취직 자료와 채용정보 등을 통해 원하는 정보도 공유하고, 새일여성인턴제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흘러가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맞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투자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